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가족 분화 및 원가족 건강성이 어머니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and differentiation
from family-of-origin and family-of-origin health on the mothers'
leadership

설희정(Seol, Hee Jung)* · 문혁준(Moon, Hyuk Jun)**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가 지각한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어머니 리더십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 리더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경기 및 인천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상관관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어머니 리더십간의 상관분석결과 어머니 리더십은 학력과 원가족 분화 및 원가족 건강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력과 원가족 건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어머니 리더십

*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mhyukj@unitel.co.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정보화 시대인 현대의 사회문화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교육수준의 향상, 첨단 도시화, 민주화 등은 가족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부모로써 그 역할과 기능까지 변화를 야기시켰다. 부모 역할에 대한 최근 논의를 보면, 부모는 주어진 환경에서 기대되는 역할에만 충실한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임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가족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실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로써의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다(윤지영, 2008, 이문용, 1988; 채경선, 2006). 이러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 사용해왔던 '부모의 신념'이나 '부모의 행동'이라는 개념적 틀(Siegel, 1985)로써 현대 부모의 영향력과 역량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인지적 특성을 설명하는 부모의 신념과 부모의 행동적 특성을 설명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부모역할에 대한 정립이 요청된다(윤지영, 2008).

부모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으로써 재산이나 외모, 특별한 지위나 명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가장 중요한 리더이고, 가정 환경은 헤드십(headship)이 아닌 리더십(leadership)의 관계가 강조되어야 하는 인간관계의 구성이다(강형철 외, 2006). 이에 따라,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부모가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부모 리더십(parent leadershi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소희, 마미정, 2006; 채경선, 2006).

부모 리더십은 부모양육행동이나 신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모 스스로 확고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의 요구와 성장에 민감하게 지각하고 적절하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관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부모양육행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부모 리더십에 대해 직접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연구는 사회, 경제조직 분야의 리더십 관련 연구에 비해 제한적이다. 최근, 부모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21세기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부모를 원하고(이연승, 2007)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면서(이연승, 2007; 최종임, 2006; 하은혜, 장은경, 2007) 이 시기 자녀의 리더십이나 개인적 지능에 부모 리더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강동구, 2011; 양재희, 2010; 이소희, 마미정, 2006; Mitchell, 1977). 또한, 채경선(2006)은 부모가 모델이 되고 이상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신뢰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 리더십은 가족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개념의 인식에 따라 부모의 행동도 달라지고 이것이 자녀의 행동이나 신념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소희, 2003). 따라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모 리더십 발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아동발달 연구에서는 전 생애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다(Luster & Okagaki, 1993). 김순기(2001)는 원가족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보인 양육경험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Benson, Larson, Wilson 그리고 Demo(1993)는 부모는 원가족에서 자신이 경험한 관계, 태도, 기대,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자기가 이룬 핵가족에 그대로 적용하여 부모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박성연, 전현진, 1999, 김순기, 2001; 정문자, 최난경, 2004; 유은희, 전춘애, 1995; 전주혜, 박정윤, 2010;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원가족 으로부터 분화가 잘 된 부모는 자신과 타인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성숙한 관계를 맺으며, 자녀에게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개성화를 증가시키는 등 건강한 양육을 나타내고,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지각되어 다음세대까지 전이됨이 밝혀졌다. 앞서 언급된 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포함된 하나의 개념으로 가족과 적절하게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말한다(정문자, 최난경, 2004). 이러한 원가족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유은희, 전춘애, 1995), 원가족 분화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배려를 하며, 확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되었다(Sabatelli & Anderson, 1991).

어린 시절 개인이 성장한 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지각한 정도로 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성을 의미하는(하상희, 정혜정, 2008) 원가족 건강성은 가족원의 믿음과 가치 및 대인관계기술과 관련이 있어 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illard, 1990). 선행연구에서도(권정란, 2005; 김순기, 2001; 정문자, 최난경, 2004) 원가족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지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 지각이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가 처해 있는 환경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술에 대한 사고를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부모의 신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특성, 소득 수준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양육신념이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이원영, 1983; Luster & Okagaki, 1993; Schaefer & Edgerton, 1985)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요인들 중에서 특히 부모의 학력은 교육이 부모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인 능력과 융통적인 사고방식 및 관점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양육신념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월수입은 자녀양육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가 가진 원가족 경험(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모 리더십과의 구체적인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모 리더십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가족과의 경험에서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핵가족과 맞벌이 증가로 인해 부부 역할 공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 양육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보다 비중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은혜, 장은경,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자신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원가족 건강성을 알아보고 원가족과의 관계인식이 세대 간 전이를 통해 부모 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부모 리더십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리고 특히 원가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 세대로 전이되어 부모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예방 및 중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경제적 지위, 원가족 분화 및 원가족 건강성은 어머니 리더십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및 인천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를 서술해보면 어머니 연령은 35세 이하가 116명(50.9%)으로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35.9세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87명(38.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맞벌이로 나타난 100명(43.9%)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 30명(14.0%), 서비스직 25명(11.8%), 전문직 24명(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128명(56.1%)이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86명(37.7%)으로 가장 높았고, 현 가족 유형은 확대가족 보다 핵가족이 173명(75.9%)으로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228)

변 인	구분	빈도(%)
자녀성별	남	120(52.6)
	여	108(47.4)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1(4.8)
	31~35세	105(46.1)
	36~40세	90(39.5)
	41세 이상	22(9.6)
첫 자녀 연령	7세 이하	98(43.5)
	초 1-3학년	89(39.0)
	초 4학년 이상	40(17.5)
총 자녀수	1명	47(20.6)
	2명	150(65.8)
	3명 이상	31(13.6)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70(30.7)
	전문대졸	87(38.2)
	대졸	58(25.4)
	대학원재학이상	12(5.3)
맞벌이	유	100(43.9)
	무	128(56.1)
직업	전문직	24(11.4)
	관리직	11(5.3)
	사무직	30(14.0)
	생산직	2(.9)
	단순노무직	2(.9)
	기술직	3(2.2)
	서비스직	25(11.8)
	비공식부분취업자	3(2.2)
	전업주부	128(56.1)
가구당 월수입	200만원 미만	16(7.0)
	200만원~300만원	63(27.6)
	300만원~400만원	60(26.3)
	401만원 이상	86(37.7)
현 가족 유형	핵가족	173(75.9)
	확대가족	55(24.1)
출생순위	장남	89(39.0)
	차녀(3명 이상)	74(32.5)
	막내	57(25.0)
	외동아	7(3.0)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 외에 어머니가 지각한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및 어머니 자신에 대한 어머니 리더십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척도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가족 분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연진(2002)이 Bray, Williamson과 Malone(1984)의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Questionnaire(PAFS-Q), 전춘애(1994)의 자아분화 척도, Chun(1996)의 부모-자녀 분화 척도(Parent-Child Differentiation Scale: PCDS)등 국내외 척도들을 토대로 개발한 '원가족 분화 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단절(12문항), 삼각화(7문항), 정서적 분리(7문항)이다. 정서적 단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삼각화는 가족 안에서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완화시키기 위해 부부 중 한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분리는 한 개인이 원가족으로 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는 총점이 낮을수록 분화수준이 높는데 반해 '정서적 분리'는 총점이 높을수록 분화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결과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를 역채점 함으로써 3개의 하위요인 모두 총점이 높을수록 원가족과의 분화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응답하게 하였고, 따라서 점수 산출방법도 아버지와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한 총 점수를 각각 별개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조부와의 원가족 분화 경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 조모와의 원가족 분화 경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2) 원가족 건강성

원가족 건강성 척도는 최현미(1997)가 Hovestadt, Anderson, Piency, Cochran과 Fine(1985)이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FOS)을 우리나라 가족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발한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 FOS-55)를 사용하였다. FOS는 자신이 성장한 가족의 정서적인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도구이다. 원가족 척도는 원래 8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척도로써 총 55문항으로 되었다. 이 중 가족의 전반적 건강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은 전체 원가족 건강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원가족 건강성을 측정하는 단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전주혜와 박정윤(2010), 장선웅, 정혜정과 이주연(2011)등의 연구에서 신뢰도 높게 검증되어 사용되었다.

본 척도에서의 원가족 건강성은, 가정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격려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을 상기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 않음(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역채점 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원가족 건강성 신뢰도는 Cronbach $\alpha=.93$ 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윤지영(2008)이 개발한 '부모 리더십 척도 질문지(Parent Leadership Scale: P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의 부모들에게 실제적으로 부모의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로써, 총 32문항으로 역할지향적(8문항), 관계지향적(15문항), 과업지향적(9문항)의 3개 차원으로 구분된다.

역할지향적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기인식과 부모로서 리더십 발휘에 대한 자기확신(부모정체성)과 양육비전에 대해 스스로 개인적 몰입을 보여주는 과정(모델링)을 포함한다. 관계지향적은 자녀의 요구와 성장에 대하여 민감하게 지각하고 적절하게 반응(개인적배려)하며, 자녀를 수용적으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의사전달(의사소통)을 하고, 또한 격려를 통해 자녀의 의욕과 열정을 고취시키는 과정(영감적배려)을 포함한다. 과업지향적은 자녀의 성숙 수준에 따라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행할 기준을 세우도록 실제적인 도전 의식을 주고(목표설정), 자녀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도전하도록 자녀의 잠재력을 촉진시키는 과정(지적자극)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리더십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역할, 관계, 과업지향적 차원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alpha=.73, .88, .81$ 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부모 리더십 신뢰도 또한 Cronbach $\alpha=.92$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 및 인천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기관에 연구에 대한 협조를 의뢰하고 원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 후, 2011년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321부이며, 회수된 질문지는 256부로, 이중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28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도 교수의 안면타당도를 통해 문항을 검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부모 리더십을 알아보고자 만 5세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집된 질문지 자료를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 환경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로 검증하였고, 변인들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가 지각한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어머니 리더십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 리더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가 지각한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부모 리더십의 평균과 표준편차 (N=228)

변인	통계치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	최소-최대값	M(SD)
원가족 분화(조부)	정서적 단절	1~5	1.33-5.00	3.80(.90)
	삼각화	1~5	2.71-5.00	4.20(.51)
	정서적 분리	1~5	1.29-4.71	3.16(.69)
	전체	1~5	2.30-4.78	3.72(.56)
원가족 분화(조모)	정서적 단절	1~5	1.50-5.00	4.02(.78)
	삼각화	1~5	2.57-5.00	4.03(.57)
	정서적 분리	1~5	1.71-4.86	3.43(.64)
	전체	1~5	2.26-4.83	3.83(.54)
원가족 건강성	전체	1~5	2.00-5.00	3.71(.67)
부모 리더십	역할지향적	1~5	2.25-5.00	3.54(.48)
	관계지향적	1~5	2.73-4.80	3.88(.45)
	과업지향적	1~5	1.89-5.00	3.48(.52)
	전체	1~5	2.43-4.89	3.63(.43)

1. 사회경제적 지위,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어머니 리더십간의 상관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및 어머니 리더십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사회경제적 지위, 원가족 분화, 원가족 건강성 및 어머니 리더십간의 상관관계

(N=28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학력	1															
2 맞벌이유무 ¹⁾	-.19*	1														
3 월수입	.31***	-.27***	1													
4 정서적단절(조부)	.16*	-.17*	.18**	1												
5 삼각화(조부)	.05	-.09	.20*	.36***	1											
6 정서적분리(조부)	.12	-.17*	.07	.71***	.19*	1										
7 원가족분화(조부)총점	.15*	-.18*	.18**	.93***	.57***	.84***	1									
8 정서적단절(조모)	.17**	-.14*	.24***	.73***	.44***	.48***	.71***	1								
9 삼각화(조모)	.04	-.10	.25***	.43***	.83***	.26***	.58***	.52***	1							
10 정서적분리(조모)	.13*	-.12	.09	.40***	.25***	.72***	.58***	.59***	.24***	1						
11 원가족분화(조모)총점	.15*	-.15*	.24***	.67	.61***	.61***	.79***	.91***	.70***	.78***	1					
12 원가족 건강성	.13	-.18*	.13	.66***	.34***	.70***	.74***	.57***	.37***	.58***	.64***	1				
13 역할지향적	.28***	-.16*	.15*	.31***	.23*	.35***	.38***	.33***	.19*	.33***	.36***	.46***	1			
14 관계지향적	.20*	-.10	.13*	.31***	.22*	.40***	.40***	.27*	.18*	.35***	.33***	.52***	.73***	1		
15 과업지향적	.18*	.01	.05	.17*	.04	.31***	.23*	.18*	.00	.33***	.22*	.35***	.64***	.64***	1	
16 어머니 리더십총점	.25***	-.09	.13	.30***	.18*	.40***	.37***	.29***	.13*	.38***	.34***	.50***	.89***	.89***	.87***	1

*p<.05 **p<.01 ***p<.001

1) 맞벌이 유=0, 무=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가 지각하는 조부에 대한 원가족 분화 및 조모에 대한 원가족 분화, 그리고 원가족 건강성, 어머니 리더십 전체 및 하위영역간의 상관은 -.17~.91의 범위를 지니며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먼저, 원가족 분화(조부) 총점과는 학력($r=.15$, $p<.05$), 맞벌이($r=-.18$, $p<.01$),

월수입($r=.18, p<.01$)에서 원가족 분화(조모) 총점과는 학력($r=.15, p<.05$), 맞벌이($r=-.15, p<.05$), 월수입($r=.24, p<.001$)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으나 원가족 건강성과는 맞벌이($r=-.18, p<.01$)에서만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리더십 총점과는 학력($r=.25, p<.001$)에서만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원가족 분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원가족 분화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수입이 높을수록 원가족 분화 수준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원가족 분화(조부)총점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족 분화(조모)총점 및 하위영역의 상관이 .58 ~ .79로 변수 간 관련성이 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가족 건강성($r=.74, p<.001$)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 리더십 총점 및 하위영역과의 상관은 .23 ~ .40의 범위를 지니며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어머니가 지각한 조부에 대한 원가족 분화는 조모에 대한 원가족 분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어머니 리더십을 잘 발휘할수록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원가족 분화(조모)총점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원가족 건강성($r=.64, p<.001$)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어머니 리더십 총점 및 하위영역에서 .22 ~ .36의 범위를 지니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조모에 대한 원가족 분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원가족 건강성과 어머니 리더십도 높아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가족 건강성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리더십의 총점과 하위영역의 상관이 .35~.52의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내 이는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어머니 리더십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와 원가족 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원가족 분화인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와 '원가족 건강성'에 대한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의 진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분산팽창지수와 오차한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VIF값이 1.10~6.40까지 분포되고 있어 $VIF<10$ 에 근거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다회귀 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 1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넣었고, 2단계에서는 조모와의 정서적단절, 삼각화, 정서적분리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부와의 정서적단절, 삼각화, 정서적분리를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 원가족 건강성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 리더십에 따른 중다회귀분석

(N = 228)

종속변인 독립변인		어머니 리더십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사회	학력	.11	.24***	.09	.20**	.09	.19**	.09	.19**
경제적 지위	맞벌이 ¹⁾	-.03	-.03	-.00	-.00	.02	.02	.03	.03
	월소득	.02	.04	.01	.02	.02	.04	.02	.04
원가족 분화 (조모)	정서적단절			.02	.04	.06	.10	.03	.05
	삼각화			.01	.01	-.15	-.20	-.16	-.20
	정서적분리			.21	.31***	.04	.06	.00	.00
원가족 분화 (조부)	정서적단절					-.05	-.10	-.09	-.19
	삼각화					.20	.23*	.15	.18
	정서적분리					.21	.35*	.11	.17
	원가족 건강성							.29	.45***
	F	5.27**		7.78***		6.68***		9.34***	
	R ²	.07		.18		.22		.31	
	ΔR ²	.07		.11		.04		.09	

*p<.05 **p<.01 ***p<.001

1) 맞벌이 유=0, 무=1

표 4에서 보면, 어머니 리더십의 1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력(β=.24, p<.001)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7%였다. 2단계에서 원가족 분화(조모)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11%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력(β=.20, p<.01)이고,

원가족 분화(조모)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정서적 분리($\beta=.31,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원가족 분화(조부) 변인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4%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력($\beta=.19, p<.01$)이고, 원가족 분화(조부)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삼각화($\beta=.23, p<.05$), 정서적 분리($\beta=.35, p<.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단계에서 원가족 건강성 변인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9%로 나타나 어머니 리더십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원가족 분화(조모), 원가족 분화(조부)의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력($\beta=.19, p<.01$)과 원가족 건강성($\beta=.45, p<.001$)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학력과 원가족 건강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패러다임에 따라 요구되어지고 있는 부모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원가족과의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자신의 원가족 분화와 원가족 건강성이 어머니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가족 분화 및 원가족 건강성은 어머니 리더십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력, 조부와 조모에 대한 원가족 분화 하위변인 및 총침, 원가족 건강성이 어머니 리더십과 대체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원가족 분화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 리더십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스스로 확고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가족과 정서적 분리가 잘 된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배려를 하며, 확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정문자와 최난경(2004)의 보고에서, 또 어머니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리를 경험할수록, 아동기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고 적절히 수용되어질수록, 부모 자신이 부모로서 자신감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전주혜와 박정윤(2010)의 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Bowen의 이론이나 권정란(2005), 조소희(2008), Bartle와 Anderson(1991)의 연

구결과에서처럼 원가족 분화와 원가족 건강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가족 분화를 높게 지각하면 원가족 건강성도 높게 지각함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예상했던 원가족과의 경험이 어머니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해준다. 다시 말해 부모 리더십은 학력이라는 변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원가족과의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 건강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가족 분화 및 원가족 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학력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의 지능이나 사회성, 리더십 등이 달라지고(김순자, 2001), 학력이 높을수록 전통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하은혜, 장은경, 2007),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는 지지적이고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며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문혁준, 1999; 이은수, 1985; 한중혜, 1980; Simons, Lorenz, Wu & Conger, 1993).

교육은 부모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지적인 능력과 사고 방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신의 교육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와 성취에 대한 열망이 매개가 되어 부모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요즘처럼 고학력시대에 긍정적인 리더십을 갖춘 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원가족 건강성이 어머니 리더십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원가족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격려 받았던 경험이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까지 전이되어 가족에게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다세대 전수개념은 정서적인 문제가 개인을 넘어서 가족 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미루어 보아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보인 자율적이고 친밀하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경험은 부모가 되어서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모로써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원인임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및 인천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 중 만 5세 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아버지에 대한 역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와는 다르다는 선행 연구(전주혜, 박정윤, 2010)결과에 따라 아버지를 포함시킨 부모 리더십 변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머니 리더십에 원가족 경험과 건강성이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학력과의 영향력도 밝혀냄에 따라 고학력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부모들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족과의 경험을 통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어머니로서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구(2011). 부모 리더십이 아동의 리더십역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형철, 김경아, 박미석, 양문희, 신제구, 박민아 외(2006). **21세기 여성 리더십 모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자(2001).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리더십간의 관계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2), 5-23.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성연, 전현진(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양재희(2010). 가정내 변혁적 리더십 및 부모의 역할행동과 유아의 셀프리더십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은희,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137-153.
- 윤지영(2008). 부모 리더십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문용(1988). **부모의 리더십**. 서울: 형설출판사.
- 이소희(2003). **여성의 리더십**.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이소희, 마미정(2006). 부모 리더십과 유아자녀의 개인적 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1(3), 93-108.
- 이연승(2007). 21세기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부모를 원한다. **한국유아교육학회 소식**, 40, 1-5.
- 이원영(1983).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이 부

-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전연진(2002). 부모의 원가족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주혜, 박정윤(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7-150.
- 정문자, 최난경(2004).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3). 87-99.
- 조소희(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 관계9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경선(2006).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리더십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51-59.
- 최종임(2005). 학부모의 리더십 개념인식과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1(2), 5-24.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 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상희, 정혜정(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하은혜, 장은경(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리더십 연구의 문헌적 고찰. **숙명리더십연구**, 6, 117-142.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Bartle, S. E., & Anderson, S. A. (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 913-324.
- Couillard(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n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227-250). New York: Erlbaum.
- Mitchell, A. (1997). Finding your own path in leadership in early care and education. In S. L. Kagan, & B. T. Bowman (Eds.), *Reflections on early childhood leadership development*. (pp. 85-96). NAEYC, Washington, DC.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chaefer, E. S.,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of parental modernity.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87-318). Hillsdale, NJ: Erlbaum.
- Sie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imons R. L., Lorenz, F. O., Wu, C. I., & Conger, R. D. (1993). Social network and marital support as mediations and moderators of the impact of stress and depression on parent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68-381.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differentiation from family-of-origin, family-of-origin health and mothers' leadership. A survey was performed for 288 mothers with 5-year-old children who were enrolled in kindergartens and nursery schools located in Incheon and Kyu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showed mothers' leadership was highly correlated with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s, differentiation from family-of-origin and family-of-origin health. Second,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s and family-of-origin health were explanatory variables for mothers' leadership.

Key words : differentiation from family-of-origin, family-of-origin health, mothers' leadership